http://dx.doi.org/10.15682/jkiha.2015.21.4.7

A Study on the Different Point of View in Healing Environment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동·서양의 치유환경 관점의 차이에 관한 연구

Son, Jihye* 손지혜 | Yang, Naewon** 양내원

Abstract

Purpose: The definition of healing and treatment is different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I suppose that the different definitions of them affect the notion of healing environment in two cultural area.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different perspective in healing environment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Methods:** Relevant literature review around domestic and foreign reference in fields of medicine and architecture has been conducted to consider the purpose. **Results:** First, the perspective that the cause of disease stems from inside of body approaches the body from standpoint of healing for recovery. Healing is the way to conquer imbalance by entering into a connection with nature around body. The concept of healing could analyze that it come from relevant perspective. Second, the healing environment in the East is the place where the flow of Qi between, human and human, and, human and environment, keep a balance. The notion of healing environment in the East is the filed of relations. In the West, the notion of healing environment is the place where arouse fine emotions through sensory stimulations. **Implications:** Recently the studies of healing environment focus on deducing sensory stimulation factors scientifically in the perspective of the West. But the healing environment couldn't be possible without the notion of place of relations. In the future, the notion of healing environment as the field of relations in the East has to be concerned.

Keywords Healing environment of the East and the West, Relational Perspective, Field of relations, Flow of Qi, Sensory Stimulation

주 제 어 동·서양의 치유환경, 관계론적 관점, 관계의 장, 기 흐름, 감각자극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and Objective

한자어에 근간을 두고 있는 우리말에서 치유(治癒)와 치료(治療)는 혼용되고 있다. 사전적 정의에서 치유는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한다."이며, 치료는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하다."이다.[1] 한자를 사용하는 문화권으로 그 의미를 확대해서 해석해 본다면 동양에서 치유와 치료의 의미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영어 어원사전[2]에서 치유(Healing)는 "전체로 만듦, 건강한 상태, 자연치유력"으로 정의하며, 치료(Treatment)는 "환자 또는 질병 및 증상에 대한 약, 외과적 수술, 정신치료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영어를 사용하는 서양 문화권에서는 치유와 치료의 의미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어원의 시기를 봤을 때, 치유는 기원전 11세기로 추정하고, 치료는 16세기로 추정되며 1744년에 의학 분야에서 첫 기록 사례가 있다.[3] 치료는 소위 과학혁명 시기에 생긴 언어이다. 서양의학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표준화 된 치료에 초점을 맞추면서

* Member, Dr.-ing, Department of Architectura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Primary author: gosjh322@nate.com)

** President, Professor, PhD, Department of Architecture, Hany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nwyang@hanya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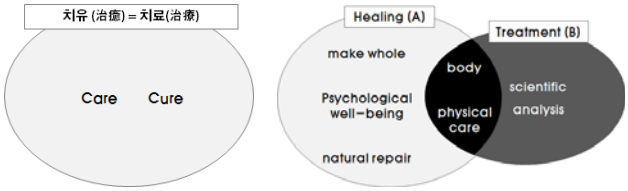
1)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출처: http://dictionary.reference.com/browse/treatment,http://www.etymonline.com/index.php?term=heal&allowed_in_frame=0

3) 출처: http://dictionary.reference.com/

치유의 개념은 약화되었다.[4)]

치유와 치료라는 단어의 정의가 서양과 동양이라는 두 문화권에서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Figure 1] 서로 다른 해석은 두 문화권의 치유환경 개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동·서양의 치유환경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a) The definition of the West b) The definition of the West

[Figure 1] The Definition of Healing and Treatment

1.2 Methods of Research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양과 서양 문화권에서 치유와 치료를 상이하게 정의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 중 의학적으로 치유와 치료의 대상인 질병의 원인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동·서양 의학사와 건축과 관련된 국·내외 서적과 학술논문을 바탕으로 질병의 원인을 살펴보고, 질병의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 치유에 대해 두 문화권이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는지 분석한다.

도출한 치유의 관점을 바탕으로 문헌을 통해 동 · 서양의 문화권에서 추구한 치유환경 개념을 고찰하고 그 차이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2. Viewpoint of Creating Disease in Eastern and Western Medicine

역사적으로 질병의 원인에 대한 해석은 지속적으로 바뀌었으며[5)], 인류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극복하고자 노력해왔다. 이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동·서양의 의학에서 바라보는 질병의 원인을 고찰해 보았다.

2.1 Viewpoint of Creating Disease in Eastern Medicine

동양에서 몸은 단순히 개체로써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을 인간과 세계 간 관계의 문제에서 찾아왔다.[6)]

중국의학의 기초서적으로 동양의학의 사상적 근간이 되는 「황제내경」은 세상이 음과 양이라는 기(氣)의 원리로 움직이며, 몸이 이 기를 이어받지 못할 때, 질병이 발생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질병의 치료 방법은 지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기술한다.(Choi, Hyeongju (Translation), 2004: 110, 132) 질병의 원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에 기인하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를 둘러싼 환경의 흐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고대 인도철학을 연구하는 심재관은 "'건강'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아로갸(Ārogya)는 '파괴되지 않은', '파편화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확대 해석하면 신체 내부의 활동이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와 세계와의 균형 있는 소통에 단절이 없는 것을 말한다."(Shim, Jaekwan, 2008; Go, Misuk, 2013: 144)라고 하였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의 관계가 단절 된 상태를 문제의 상태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동의보감은 인간의 몸을 소우주로 보고 있다. 몸은 끊임없이 세계와 기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의 순환이 막히거나 원활하지 않을 때,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고미숙은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는 기의 흐름과 분포를 보여주며, 장기들을 흐르는 기운이 작용하는 특정 구역으로 기술한다. (Go, Misuk, 2013: 20) 즉, 신형장부도는 기의 흐름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는 몸을 그린 것이라고 사료된다.

하야시 하지메는 17세기 청나라 명의로 알려진 섭천사(1667-1746)의 일화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옛날에 한 환자가 있었는데 모든 약을 써도 효험이 없었으나 섭천사가 이전 처방에 오동잎을 보조약으로 넣어주는 것을 한 첩 먹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그 때는 가을철이었던지라 오동이 가을 기운을 먼저 안다는 것이다. 가을 기운으로 병 기운을 다스렸더니 그 기운이 들어맞아서 낫게 되었다는 것이다."(Hayashi

4) 이재담은 "19세기 기초의학의 발달은 인체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 인체의 구조와 질병을 더욱 정확하게 연관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 의학은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호흡이나 소화 등의 생리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어 19세기 후반 독일이 지도적 역할을 했던 '실험실 의학'의 시대를 열었다."(Lee, Jaedam, 2007: 64)와 함께 당시 프랑스 출신 의사 브루세(François-Joseph-Victor Broussais)가 "자연치유력을 부정하고, 능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Lee, Jaedam, 2007: 54)는 내용을 기술한다. 19세기 이후 서양의학에서 과학에 근거한 치료가 질병을 고치는 보편적 방법이 되면서, 치유는 비과학적이고 경험적 개념으로 분류되고 관련된 의학적 방법들은 비주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고미숙은 "질병은 시대의 투영이다. 그 시대의 사회적 조건이나 일상의 배치를 고스란히 보여준다."(Go, Misuk, 2013 b: 94)라고 하였으며, 강신익은 "역사와 문화, 시간과 장소가 달라지면 몸에 대한 상식 또한 달라진다."(Kang, Sinik, 2007:14)라고 기술한다. 역사적으로 몸에 대한 이해와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인류는 그에 대응하는 방법을 탐구했다고 볼 수 있다.

6) 로버타 비빈스(Roberta Bivins)는 "중국과 인도에서는 질병이 몸 안의 불균형 상태의 결과이며, 개인과 환경 사이의 불균형이나 상호작용, 또는 부조화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중략) 인도와 중국 의학을 떠받치는 중요한 신체개념은 기본적으로 환경의 힘과 소통할 수 있는 유동적 실체다."(Roy Porter, 2009: 202, 220)라고 기술한다.

Hajime, 2008: 76) '기운이 들어맞아서'라는 표현을 통해 질병의 문제를 치료와 더불어 몸과 몸을 둘러싼 환경 사이의 기의 흐름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사상의학을 주창한 이제마는 원활하지 못한 감정의 조절은 기 흐름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The Institute for Medical Humanities, 2009: 46) 그는 감정의 문제가 의술이 아닌 사람과의 원활한 관계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곽노규는 "이제마가 정의하는 성정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서도 생긴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나와 상관없는 객체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관계이므로 결국은 나에게 다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The Institute for Medical Humanities, 2009: 57-58) 이제마가 바라본 질병의 문제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사회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 즉, 관계의 문제라고 사료된다.

고전 평론가 고미숙은 동의보감을 해석하면서 건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건강이란 근원적으로 몸과 외부 사이의 '활발발'한 소통을 의미한다. 소통하지 않는 삶은 그 자체로 병이다. 그래서 몸에 대한 탐구는 당연히 이웃과 사회, 혹은 자연과 우주에 대한 탐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Go, Misuk, 2013 :30)라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과의 원활한 관계 속에서 건강을 정리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양생(養生)을 강조한다.[7] 양생은 우리 몸 스스로가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즉 자연치유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양생의 목표는 기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이며, 그 방법은 인간과 세계와의 소통에서 찾고 있다.[8]

이상을 정리하면 첫째, 동양에서 바라보는 질병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대전제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환경 사이의 불균형이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위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유·무형의 환경사이의 조화로운 흐름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동양에서는 몸 내부에 질병의 원인이 있으며, 질병은 몸의 부분이 아닌 전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건강한 삶을 위해 전체론적인 관점으로 몸을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앞서 치유 개념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즉, 동양에서 건강한 삶은 치유를 전제로 한다고 사료된다.

셋째, 동양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몸과 세계의 관계에서 찾는다. 즉, 우리의 몸을 관계론 관점으로 해석한다고 판단된다.

2.2 Viewpoint of Creating Disease in Western Medicine

서양에서 질병의 원인을 이성적으로 접근한 것은 고대 그리스[9]로 볼 수 있다. 당시 그리스에서는 질병을 신체의 4체액이 균형을 잃은 상태로 해석하였다. 소위 고대 서양의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은 자연에서 멀어질수록 병에 가까워진다(Akira Kawashima, 2011: 109)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계절, 환경과 질병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좋은 환경은 환자의 신체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Roy Porter, 2009: 39) 고대 서양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환경과 몸 사이의 관계에서 찾았다. 그리고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전체성 회복을 추구한 것으로 사료된다.

중세 기독교 시대가 되면서 수도원은 의료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10] 사람은 죄로 인해 질병에 걸리는 것이며, 병을 치료하는 것은 기도를 통한 종교적 힘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11] 다만 의학적으로 기존 그리스 시대의 관점이 지속되었다.

16세기 파라켈수스(Paracelsus)는 광물질에 의해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질병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보았다.(Kang, Sinik, 2007: 22-23) 그는 화학물질을 약에 처방하였으며 치료의 관점으로 몸을 바라보았다. 그는 체액의 균형 즉, 신체의 불균형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다는 고전의학을 부정하고, 치료라는 근대적 관점의 의학을 주장하였다.(Roy Porter, 2009: 55) 이후 제멜바이어스(Ignaz Phillip Semmelweis)의 세균에 대한 탐구[12]와 파스퇴르(Louis Pasteur)의 미생물 발견

7) 「황제내경소문」을 해역한 최형주에 따르면 "제 1권 상고천진론(上古天眞論)에서 양생의 도(道)에 관하여 논한다."고 기술하였으며, (Choi, Hyeongju (Translation), 2004: 4) 고미숙의 「동의보감」에 따르면 "'미병'은 건강과 질병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몸 상태를 표현하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다. '미병'일 때 우리는 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치료하거나, 아프지 않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 노력이 바로 양생이다."라고 기술한다. (Kwak, Nogyu, Kim, Sicheon, 2008; Go, Misuk, 2013 b: 134) 몸을 불안정한 상태로 본 동양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 양생은 중요한 방법이었다.

8) 고미숙은 "양생술은 일상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기를 조절하는 주체가 되는 것"(Go, Misuk, 2013 b: 164)이며 양생의 방향은 몸과 몸을 둘러싼 세계가 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Go, Misuk, 2013 b: 177)

9) "그리스인들은 기원전 7세기 무렵부터 질병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연적, 과학적, 논리적으로 관찰하고 접근했다."(Lee, Jaedam, 2007: 4)

10) 베네딕도 규칙서 제 36조 '병든 형제들에 대하여' 중 "환자들을 치료하는 건 가장 큰 의무에 속한다.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는 것처럼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고 수도원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Lee,Hyeounu,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0&ved=0CEwQFjAJahUKEwid5PmP2cHIAhUGqJQKHcOCAQw&url=http%3A%2F%2Fcfs9.blog.daum.net%2Fupload_control%2Fdownload.blog%3Ffhandle%3DMElvM0JAZnM5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jAuZG9j%26filename%3D20.doc&usg=AFQjCNFgiYGJpRWV315Z6G7cHmeA9GYhiQ&bvm=bv.104819420,d.dGo&cad=rjt)

11) "종교적인 믿음에 따라 환자들은 병상에 누워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여 죄를 용서받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이 치료되기를 바랐으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인생을 정리하려고 생각하였다."(Yang, Naewon, 2004: 39)

12) 산모들의 산욕열의 원인이 의사들이 씻지 않은 손을 통해 발생한다는 것을 통해 세균의 존재를 밝혀냈다.

을 통해 질병이 병원균에 의해 발생한다는 개념이 확고해졌다. 당시 근대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서양 의학계는 신체를 구조와 기능에 따라 기계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방법을 의학에 도입하였다. 따라서 기계를 수리하는 과정과 같이, 병원균을 치료로 제거하였다. 이 같은 흐름은 근대 주류의학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13)]

이후 20세기에 들어 질병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질병의 원인을 병원균뿐 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자연치유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1948년 WHO(세계보건기구)는 International Health Conference에서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 허약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온전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부분적 보완은 있으나 현재까지도 WHO의 건강 개념의 골자가 되고 있다. WHO는 질병을 병원균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전체성 문제라는 큰 범주로 해석한다. 앞서 치유의 관점에서 질병의 원인을 바라보는 것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암 환자를 연구한 칼 시몬튼(O. Carl Simonton) 박사는 "실제 혹은 가상일 지라도 상실감은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중략) 상실감은 무력감과 절망감을 생산한다."(O. Carl Simonton, 1975: 30)라 하였다. 그는 질병의 원인이 감정과 스트레스와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20세기 말부터 면역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인간의 자연치유력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14)]되면서 신뢰를 얻기 시작하였다.

일본 의학박사 가와시마 아키라는 "서양 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서로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여 치료를 진행하지만 인간의 몸과 마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Akira Kawashima, 2011: 23)며 질병을 신체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서양의학에서 바라보는 질병의 원인은 시대의 사조에 따라 극명하게 바뀌어다. 이상을 정리하면 첫째,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질병을 몸 전체의 불균형 상태로 보았으며, 원인을 조화롭지 못한 환경과의 관계에서 찾기도 하였다. 질병의 원인을 죄로 보던 중세에도 의학적 방법은 그리스의 방법을 따랐다. 서양은 고대에 환경과 인간의 관계론적인 관점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몸 전체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의학은 최종적으로 치유를 추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근대 시대는 신체를 기계로 해석하고, 질병의 원인을 신체에 침투하는 병원균으로 보았다. 근대 의학은 더 이상 몸을 관계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주류 의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최근 질병은 병원균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질병의 원인을 다시 몸의 내부에서 찾기 시작하였으며, 몸을 전체적 관점으로 다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질병 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통해, 오늘날 고대 치유의 관점이 과학과 결합되어 다시 대두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2.3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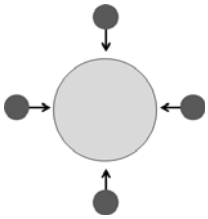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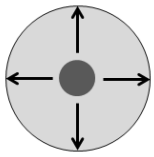
동·서양의 질병의 원인에 관한 논의들을 보면 크게 두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고 판단된다(Table 2).

첫째, 질병의 원인을 신체의 불균형으로 보고 몸 안에서 찾는 것이다. 몸 전체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시각은 치유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즉, 치유는 신체와 환경을 관계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동양의학은 오늘까지도 치유의 관점으로 우리의 몸을 바라보지만 서양의학은 중세 이후 치유의 개념이 약화되었으며, 오늘날 일부 의학 분야에서 그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둘째, 질병의 원인을 몸 밖의 병원균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몸은 병원균의 제거를 위해 구조적이고 기능적으로 탐구되었다. 즉, 몸은 치료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근대 서양의학의 관점으로 오늘날까지 주류의학으로 이어진다.

[Table 1] Viewpoint of Disease

Origin	Outside of Body	Inside of Body
model		
cause of disease	= germ	= unstable condition

body

13) 강신익은 몸을 기계로 해석하는 근대의학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큰 흐름으로 보아 현대의학은 마음에서 벗어난 몸의 구조와 기능을 주로 실험을 통해 알아내는 탐구활동이라 할 수 있다. 데카르트가 몸을 어떤 계획에 따라 제작한 기계로 생각했다면 생리학자들은 그 기계가 지닌 기능에 주목했다.(Kang, Sinik, 2007: 39-40) 근대과학의 방법론을 외과의학에 끌어오면서 외과의학은 과학을 닮아갔다. 외과는 경험에서 출발했고 실제로 몸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해 준 것은 바로 이론과 과학이다.(Kang, Sinik, 2007: 53-54)"

14) "20세기 말에 건강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는 뇌와 면역체계의 연관성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규명하지 못했다면, 건축공간이 건강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생각은 과학적 차원에서 연구될 수 없었을 것이다."(Esther M. Sternberg, 2013: 43)

3. The Notion of Healing Environment in the East and West

치유의 관점에서 질병으로부터 몸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동 · 서양 의학사에 모두 존재하였다. 특히 우리의 몸을 관계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치유의 과정에서 환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사료된다. 역사적으로 선사시대에는 주술로서 초월적 힘에 의해 인간의 영혼이 치유된다고 보고, 신전을 계획하였다. 이후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의학적 관점에서 동양과 서양에서는 치유환경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조성하였는지 고찰해보았다.

3.1 The Notion of Healing Environment in the East

인도에서는 영혼과 몸 그리고 환경이 소통할 때, 건강이 유지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명상 수련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기원전 6세기 인도의 고타마 싯다르타는 명상이 가능한 사원을 조성하여 치유환경을 계획하였다. 당시 치유환경은 구체적 환경요소가 제안된 공간이 아니라 종교와 철학과 맞닿아 있는 정신적 공간 그 자체임을 알 수 있다. (Roy Poter, 2009: 365-366)

기원전 2~3세기 우리나라 고대 종족의 하나인 예맥에서 기원한 피접 개념은 환경에 의해 인간의 삶은 영향을 받고, 환경을 통해 치유가 가능함을 내포하고 있다. 「후한서」에 따르면 피접은 병이 들면 옛집을 버리고 새로 집을 지어 이사하거나 요양하는 풍습이다.[15] 이 풍습은 조선 왕가에서도 행해졌으며,[16] 지금까지도 요양을 위해 집을 떠나 다른 곳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피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Figure 2] Sangwonsa, the temple where, king of Joseon, Sejo had been stayed for healing.

앞서 동양의학에서 기의 불균형을 질병의 원인으로 보았다. 즉, 일상적인 기의 흐름이 균형을 이룬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의 치유환경은 환자만을 위한 개념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문제였다고 사료된다.[17] 이 같은 건강한 삶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하여 발전한 학문이 풍수지리학이다. 풍수지리의 기본원리인 장풍득수(藏風得水)는 4세기 중국 곽박의 「장경」에서 처음 기술된 용어로서 바람과 물을 시공간에 따라 적절히 얻을 수 있는 땅이 명당이며[18], 이때 적절한 바람과 물의 흐름은 땅이 가진 기(氣)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풍수지리학은 기의 흐름에 따라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음양(陰陽)이 정해진다고 본다.[19] 따라서 기가 잘 통하고, 양기가 흐르는 땅은 건강한 땅, 즉 생기(生氣)가 흐르는 땅으로 보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라고 여겼다.[20] 결론적으로 풍수지리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치유 공간을 찾는 방법이며, 종합적인 관계의 장으로 볼 수 있다.[21]

이후 18세기 연암 박지원의 소설 「민옹전」은 병을 얻은 박지원이 민옹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복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민옹은 의사가 아니지만 박지원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그린 치유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한 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 18세기 이중환은 택리지의 복거총론(卜居總論)에서 풍수 조건에 해당하는 터를 잡는데 중요한 요인을 제안[22]하는데 그 중 인심이

15)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Contents?contents_id=E0060492

16) 조선의 7대 왕 세조는 피부질환을 앓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좋은 공기와 물이 있는 곳들을 찾아다니다 상원사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7) 김승호는 "환경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좋은 환경이 사람을 좋게 만들고 나쁜 환경이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법이다. 풍수란 환경이론과 다르지 않다. 환경이란 터의 성질을 일컫는데, 터의 종류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기운이 발산되고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기운이란 단어는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의 개념은 터의 작용을 뜻하는 말이다."(Kim, Seungho, 2014: 31)라고 기술하였다. 이것은 풍수지리학을 삶의 문제로 본 것이라고 본다.

18) 풍수사상은 훗날 입지선정을 위한 배산임수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19) 풍수지리학자 조인철은 "풍수적으로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기(氣)로 본다는 것이다."(Cho, Incheol, 2010: 35)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논리의 배경은 동양적 관점에서 대상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고미숙은 "천지창조의 시발은 힘 혹은 에너지의 폭발이다. 동양우주론에선 그걸 기라고 총칭한다. (중략) 모든 존재는 이 기의 '분유'를 통해 형질을 갖춘다. 인간의 몸 역시 그러하다."라 하였다.(Go, Misuk, 2011: 112) 즉, 동양에서는 만물 생성의 근원은 기에 있으며, 그 기에 따라 대상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기는 대상을 해석하는 기준 중 하나로 여겨진다는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풍수지리는 기로써 땅을 해석하는 방법론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0) 풍수학자 최창조 교수는 "터를 잘 잡는다는 것은 땅과 생명체가 기를 상통(相通)시킬 수 있는 자리를 잡는 것이다."(Choi, Changjo, 2011, 39)라고 기술한다. 저자는 기를 막연하고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환경과 인간이 상호 영향을 주는 매개체로 보는 것이다. 풍수지리는 오늘날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관계를 논하는 치유환경의 기본 개념을 기로써 풀어내는 방법론이라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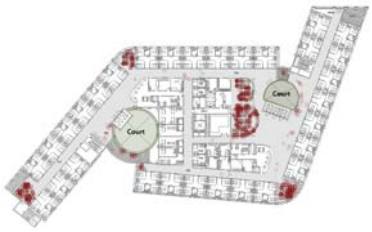
21) 철학자 곽내혁은 "양자물리학의 장이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계론적 세계관은 기의 세계관과 다르지 않다.(Kwak, Naehyeok, 2012: 51) 몸도 일종의 에너지가 구조화된 것인 만큼 일정한 장을 형성한다. 그렇지만 몸이 끊임없이 주위세계와 기운의 교류를 하면서 변화해나가듯이 몸의 기질적 상태가 조성하고 있는 장도 주위세계와 연속되어 교섭하고 있다."(Kwak, Naehyeok, 2012:203)

22) "무릇 살터를 잡는 데는 첫째, 지리가 좋아야하고, 다음 생리가 좋아야 하며, 다음은 인심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은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10: 38)

있다. 인심에서 기술 된 맹모삼천지교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선 풍수지리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하였다면, 택리지와 민옹전은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를 치유환경으로 개념화한다고 판단된다.

동양의 치유환경은 끊임없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사료된다. 이 관계의 장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 사이의 기 흐름 속에서 규정되며, 기의 흐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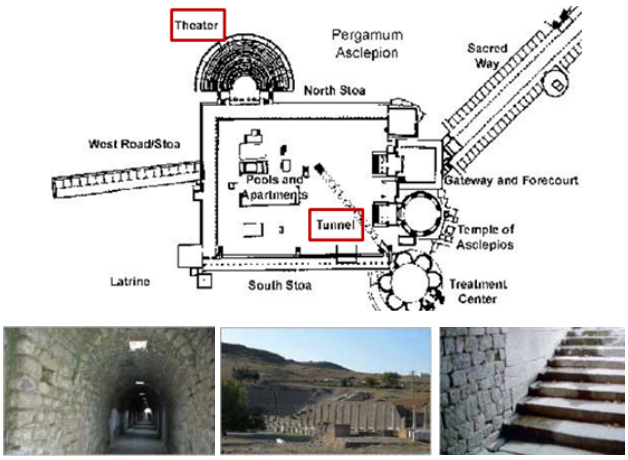
[Table 2] Comparison of User Sojourn Distribution

Case 1.	Case 2.
Middle Corridor System with Court + Hall	Middle Corridor System
	
User sojourn distribution is influenced by environmental conditions.	

Red Dot : Users Position

3.2 The Notion of Healing Environment in the West

그리스 · 로마의 의료시설 아스클레피온(Asclepion)은 초기 히포크라테스가 추구한 환경과 인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공간화 한 치유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1세기에 건설 된 것으로 추정되는 페르가몬(Pergamon)의 아스클레피온은 자연환경과 인접한 곳에 계획되었다. 계단 옆으로 나있는 물길을 계획하여 물이 떨어지는 소리로 생동감을 연출하였으며, 빛이 떨어지는 터널을 계획하여 시각적으로 암과 명을 통한 극적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공간 내부까지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역할극과 콘서트가 가능한 극장 및 도서관을 계획하여 환자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Figure 4] 아스클레피온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인간과 인간사이의 교류를 충족시키는 환경을 계획하였다. 환자들의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아스클레피온의 환경은 환자들의 감각을 자극시켜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였으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능적 공간(극장, 도서관)을 계획하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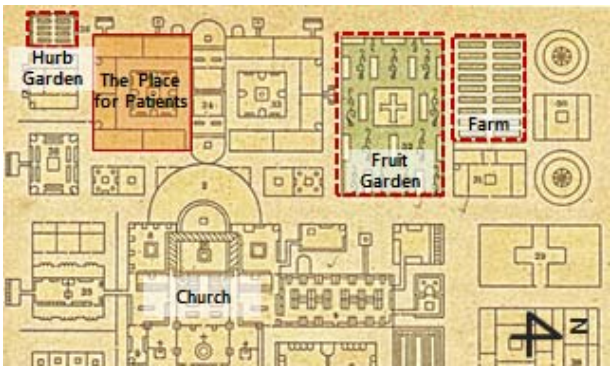


[Figure 3] Asclepion Plan and Healing Space (www.ntimages. net)

이후 중세 기독교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앞서 베네딕도 규칙서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회가 사회적 역할로서 병자들을 돌보고, 수도원이 병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당시 수도원에는 치료를 위한 약초를 생산하기 위해 약초원을 두었으며, 섭식을 위해 과일정원과 채소밭을 두었다. 고정희에 따르면 수도원 정원은 늘 이와 같은 구조로 지어졌다고 한다.(Ko, Junghui, 2011: 165) 그러나 이 정원들은 단순히 생산목적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었다. 13세기 클레르보 수도사의 편지[23]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편지에 인간의 긍정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모든 자연환경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감각을 자극하는 모든 요소를 신이 베푸는 것이라고 보았다.

[Figure 5] 는 성 갈렌 수도원의 도면이다. 성 갈렌 수도원의 환자 공간은 약초정원, 유실수 정원, 채소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수도원의 동쪽에 배치되어 있다. 환자공간을 중심으로 치유정원을 계획하였으며, 충분한 빛에 노출 될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중세 수도원의 치유환경은 감각을 자극하는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23) "수도원 뒤로 가면 넓은 정원이 있어. 거긴 담으로 둘러싸여 있지. 그런데 정원이 꼭 과수원 같아. 세상의 모든 과일나무가 다 있어요. 아픈 사람들 사는 병동에 가까이 있거든. 아픈 형제들이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말이지. (중략) 이렇게 그늘에 앉아 있으면 약초향이 코로 스며들며 더 위안이 될 거야. 약초는 사랑스런 연두색으로, 꽃은 예쁜 빛깔로 환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중략) 공기는 순수하게 빛나고 흙은 훈훈한 향을 풍기니 환자는 눈으로, 귀로, 코로 색과 노래와 향을 듬뿍 마실 수 있어."(Ko, Junghui, 2011: 161-163)



[Figure 4] Monastery of St. Gallus Plan(Ko, Junghui, 2011: 189)

근대 과학의학의 도래로 치료가 중요해지면서 의료기능 공간 계획에 초점을 맞췄으나, 치유공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다만 19세기 후반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 된 파빌리온(Pavilion) 병원의 환자들 간 침상간격은 넓어졌고, 기존의 어두운 병동은 모든 침상이 빛에 노출되는 밝은 병동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공기 중 전염과 악취를 피하기 위해 환기시스템이 고안되었다. 환자에게 빛과 신선한 공기는 시각·후각 자극을 개선시킬 수 있는 환경 요소이었다.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파빌리온 병원은 환경과 관계론적 관점에서 치유공간이라고 사료된다.

현대 의학에서 환경과 치유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24]가 지속되면서 치유환경 개념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신경면역학 분야는 특정 환경이 인간이 감각기관을 자극하고, 그 자극이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 인간의 자연치유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으며,(Esther M. Sternberg, 2013: 43) 의료시설 전문가 알란 딜라니(Alan Dilani)교수는 "근대 질병은 더 이상 병원성에 의한 좁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며, 물리적 환경에서 오는 다양한 사회 심리적 요인들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Alan Dilani, 2005: 13)고 하였다.

인간의 치유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의료시설계획에 적용되면서 근거중심 디자인(Evidence Based Design)이 발전하게 되었다. 근거중심 디자인을 통해 연구자와 건축가들은 치유환경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도출하고,[25] 의료시설 계획에 적용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다.

특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현대 의학에서 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한 정신신경면역학 분야는 인간은 환경을 감각기관으로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인지되는 요소들을 치유환경이라고 본다. 현대 서양에서 연구된 치유환경의 근본적인 개념은 감각을 통해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것은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Table 3]은 국·내외 치유환경 관련 문헌을 통해 치유환경 요소를 도출한 연구들 중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로 제안된 항목들을 색으로 칠한 표이다. 제안 된 대부분의 요소들이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Table 3] Viewpoint of Disease

Choi, Kwangseok et al.(2002)	Chio, Youngmi (2007)	Choi, Youngseon et al.(2015)
Wayfinding	Light	Ambiance
Noise	View of Nature	Noise
Light	Healing Garden	Noise
Temperature	Size of Space	Color of Wall
Furniture	Personal Item	Visual Stimuli
Familiar Entrance	Color/Pattern	Auditory Stimuli
Privacy	Visible Contrast	Olfactory Stimuli
Simplicity	Privacy	Memory Boxes
Safety/Security	Exit Disguise	Mural
adaptation	Homelike	Full Length Mirror
Public Space	Safety	2D Floor Patterns
Garden	Loitering	Exit Door Design
Color	Cue	Panic Bar Covers
Texture	Sign	
Size of Space	Visible Approach	
Opening	Music	
Nature	Sound of Nature	
A Work of Art	Noise	
Loitering	Personal Space	
Hobby	Scent	
Family Space	Smell of Cooking	
Interaction	Texture	
	Familiar Touch	
	Temperature	
Visual Stimulation	Olfactory Stimulation	Plate Stimulation
Auditory Stimulation	Tactile Stimulation	

역사에서 나타나는 서양의 치유환경은 근본적으로 감각을 자극하는 환경이라고 판단된다. 관계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감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서양의 치유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긍정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일대일로 대응되어 공간에 계획된다는 점이다. 감각 자극 요소들은 공간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지만, 환경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과정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본다. 기능

24) 1984년 Roger S. Ulrich 박사는 정원을 바라보는 병실과 벽돌 벽을 바라보는 병실의 수술 후 환자 상태를 비교하여 정원을 바라보는 병실의 환자가 벽돌 벽을 바라보는 병실의 환자보다 재원 기간이 짧고, 합병증이 적으며, 투여되는 진통제 강도가 낮음을 밝혔다. 자연환경이 인간의 치유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연구로서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그 이후 국외에서는 지속적으로 치유환경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Roger S. Ulrich, 1984)

25) 2005년 개최 된 'Therapeutic Environment Forum'은 계획과, 건축가, 엔지니어, 인테리어 디자이너, 조경디자이너가 모여 치유환경 개념을 정리하고, 개념에 따른 요소들을 하위항목으로 제시하였다.(Son, Jihye, 2012: 126)

적으로 계획된 근·현대 병원은 요소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Figure 5).

[Figure 5] Although the color, texture, handrail etc are considered, still corridors are functionally pla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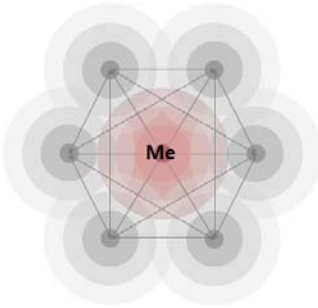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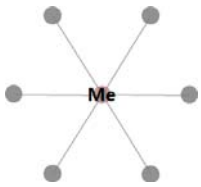
3.3 Analysis

동양과 서양의 치유환경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양의 치유환경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기 흐름이 균형이 이루는 관계맺음의 공간이라 사료된다. 즉, 동양의 치유환경은 관계의 장이다.

서양의 치유환경은 환경과 인간의 감각자극의 대응을 통해 긍정적 감정이 유발되는 공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감각 자극 요소가 치유환경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양의 치유환경은 감각자극 환경이라고 사료된다(Table 4).

[Table 4] Conceptualization of Healing Environment

Healing Environment in the East	Healing Environment in the West
	
Environment as Field of Relations	Sensory Stimulation Environment

4. Conclusion

본 연구는 동양과 서양 문화권에서 바라보는 치유환경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고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두 문화가 치유 개념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가를 질병 원인의 변천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출한 치유의 관점을 바탕으로 동양과 서양에서 추구한 치유환경 개념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역사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둘로 볼 수 있었다.

첫째, 질병의 원인을 몸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는 몸의 불균형을 질병의 원인으로 보며, 몸의 회복을 위해 전체론적인 관점인 치유로서 접근한다. 두 문화권에는 치유는 몸과 몸을 둘러싼 유·무형의 환경사이에 조화로운 흐름과 소통이 회복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치유는 관계론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질병의 원인을 몸 밖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는 질병의 원인을 병원균에 의한 것으로 보고, 몸을 구조적, 기능적으로 탐구하여 치료한다. 즉, 몸을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관계론적 세계관의 치유 개념에서 나를 둘러싼 인간과 환경은 중요한 대상이다. 동양과 서양에서 치유환경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동양의 치유환경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변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았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사이의 보이지 않는 기가 균형 있게 흐르는 공간에서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동양의 치유환경은 장의 건축으로 볼 수 있다.

서양에서 감각은 환경과 관계를 맺는 중요한 도구였다. 서양의 치유환경은 긍정적 감각을 자극하여 좋은 감정을 환기시키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가 치유 공간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과거 경험적 방법으로 치유 요소들을 찾았다면 최근에는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탐구함을 알 수 있다.

3) 최근 치유환경에 관한 연구는 서양의 치유환경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감각자극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공간에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요소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없다면 치유환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동양적 치유환경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동양과 서양의 치유환경개념을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하고, 제언하였다. 치유환경 개념을 두 문화권으로 분류하여 분석 과정에서 비주류로 해석되는 개념들이 있었다. 향후 연구를 통해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Alan Dilani, 2005, Psychosocially Supportive Design As a Theory and Model to Promote Health, International Academy for Design and Health, p.13-22

Akira Kawashima, Lee Jinwon (Translation), 2011, 보이지 않는 힘, 1st edition, Samho Media, Seoul

Choi, Changjo, 2011, 사람의 지리학, 1st edition, Booksea, Paju

Choi, Hyeongju (Translation), 2004, 黃帝內經素問, 1st edition, Jau Books, Seoul

Cho, Incheol, 2010, 양생풍수의 비밀, 1st edition, Dasan Books, Seoul
Choi, Kwangseok, Kim Khilchae, 2006, A Study on the Supportive Design Conditions for the Hospital Stress in Kor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8(1), pp.62-67
Choi, Youngmi, 2007,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for the Healing Environment of Dementia Facilities Considering Multi-sensory Stimulation, Ph.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Choi, Yongseaon, Choi, Yeojin, 2015, A Study on Environment-related Factors that Affect Wandering for People with Dementia,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21(3), pp.9-23
Esther M. Sternberg, Seo, Yeongjo (Translation), 2013, Healing Space: The Sciences of Place and Well-being, 1st edition, Gilbut, Seoul
Go, Misuk, 2013 a, 고미숙의 몸과 인문학, 1st edition, Bookdramang, Seoul
Go, Misuk, 2013 b, Dongui Bogam, 4th edition, Bookdramang, Seoul
Hayashi Hajime, 2008, Korean Association For Studies of Philosophical Thought Department of Qi-Philosophy·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Science (Translation), 동양의 의학은 서양과학을 뒤엎을 것인가, 1st edition, 문사철, Seoul
Kang, Sinik, 2007, History of Body, 1st edition, Salim Books, Seoul
Kim, Seungho, 2014, 사는 곳이 운명이다, 1st edition, Sam n Parkers, Paju
Ko, Junghui, 2011, 신의 정원, 나의 천국, 1st edition, Namudosi, Goyang
Kwak, Naehyeok, 2012, 내가 열리면 세계가 열린다, 2nd edition, Changhae Books, Seoul
Lee, Jaedam, 2007, History of Western Medicine, 1st edition, Salim Books, Paju
Lee,Hyeounu,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0&ved=0CEwQFjAJahUKEwid5PmP2cHIAhUGqJQKHcOCAQw&url=http%3A%2F%2Fcfs9.blog.daum.net%2Fupload_control%2Fdownload.blog%3Ffhandle%3DMElvM0JAZnM5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jAuZG9j%26filename%3D20.doc&usg=AFQjCNFgiYGJpRWV315Z6G7cHmeA9GYhiQ&bvm=bv.104819420,d.dGo&cad=rjt), 2015.10.13.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10, 삶과 생명의 공간, 집의 문화, 1st edition, Kyungin, Seoul
Roy Poter, Yeo Inseok (Translation), 2009, MEDICINE A HISTORY OF HEALING, 1st edition, Nemo Books, Seoul
Son, Jihye, Yang, Naewon, 2012,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Considering Healing Environmental Concept in Domestic Healthcare Architectures Schematic Design,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8(7), pp.125-132
O. Carl Simonton, 1975, Belief Systems and Management of the Emotional Aspects of Malignancy, http://www.atpweb.org/jtparchve/trps-07-75-01-029.pdf, pp.29-47
The Institute for Medical Humanities, 2009, 인문의학, 고통! 사람과 세상을 만나다, 1st edition, Humanist Books, Seoul
Roger S. Ulrich, 1984, View through a Window May Influence Recovery from Surgery, Science, New Series, 224(4647), pp.420-421
Yang, Naewon, Hospital Architecrue, 2004, 1st edition, Plus, Seoul
Yang, Naewon, Cho, Junyoung, Son, Jihye, Kim, Eunseok, 2013, 「Hospital Architecture and Sustainability in Korea」, The Symposium on Healthcare Architecture in Asia 2013,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pp.62-68
Yang, Naewon, Son, Jihye, 2015, Healing Environment of the East,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21(2), pp.77-80
http://dictionary.reference.com/browse/treatment, 2015.10.08.
http://www.etymonline.com/index.php?term=heal&allowed_in_fram=0, 2015.10.08
http://dictionary.reference.com/, 2015.10.08
www.ntimages. net, 2015.10.08

접수 : 2015년 10월 15일
1차 심사 완료 : 2015년 11월 09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11월 09일
3인 익명 심사 필